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2차 긴급 대책 회의

전협 전북, 대표회원 100여명 참석... 산업재해 사망 근절 위한 정부 정책 방향 공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6일 도회 대강당에서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함께 나누고,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제2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역 건설업계의 대응 및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재철 회장은 "근로자의 생명 보호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 운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중대재해 제로(0)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회 회장단 긴급회의의 내용과 함께, 도회 회장단을 통해 1차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응 방안도 공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건설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표이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소재철 회장은 산업재해 관련 각 부처별 대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시정하고 주요내용과 앞으로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를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며 회원사의 안전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이율리, 회원사의 현장 안전관리 이해를 돕기 위해 전주 지역 건설안전보건협의회 회장이며 7월 산업안전보건(주)신성건설 서진석 안전팀장의 현장 안전관리 중점 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오상근 기자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 이벤트

전은 JB플랫폼, 8월 한 달간 개인 체험자 특별 굿즈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JB플랫폼에서 8월 한 달간 디지털 금융체험 개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한독립 만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 참여 방법은 JB플랫폼 금융체험 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독립 운동가에 대한 퀴즈를 맞추면, JB플랫폼 특별 제작 굿즈를 제공한다. 특별 굿즈는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벤트 기간 중 특별 굿즈가 소진되더라도 JB플랫폼 체험 및 기본 굿즈 수령은 가능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내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전북은행 JB플랫폼에서 즐거운 경험을 쌓길 바라며, 앞으로도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JB플랫폼은 도내 학교 및



아동센터 등 여러 단체에서 금융교육 체험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금융교육의 선도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금융교육 체험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으로 평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되며 회차 당 15명씩 운영된다. 체험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JB플랫폼 홈페이지와 전북은행 사회공헌홍보부(063-250-7465, 7405)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 'JB 메디컬 주거래 통장과 함께 씬이 있는 이벤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병·의원 및 약국 개업 의사·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休) 이벤트'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의료급여 또는 카드 매출대금 신규 입금과 지속 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의료급여 또는 카드매출대금 신규 입금 고객에게 JB기프트 카드 10만 원을 각각 100% 지급하며, 2개월 연속 입금 시 롯데호텔 숙박권(60만원 상당 총 6명, 월 2명)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이벤트 인정 기준은 의료급여 입금액 및 평균잔액 월 5백만원 이상,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및 평균잔액 월 5백만원 이상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개업 의료인을 위한 'JB메디컬 주거래 통장'이 출시 이후 꾸준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이벤트는 바쁜 의료인의 일상에 작은 '쉼'을 전하고자 마련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고객에게 특화된 이벤트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국산 로봇착유기' 대만 수출... 세계 시장 진출 발판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 다운 공동 개발 '데어리봇' 7대 대만 수출

국산 로봇착유기가 아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기업 (주)다운과 공동 개발한 '데어리봇(Dairy Bot)' 7대를 대만에 수출하며, 아시아 낙농 시장 본격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 기술 홍보, 제품 실증 등 다각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 낙농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은 결과다. 특히 대만 낙농기자재 유통업체가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해 제품 성능과 데이터 처리 체계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운영 안정성과 기능 유연성, 가격 경쟁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MOU)도 지난해 체결했다.

대만은 농가당 사육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로봇착유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에 관심이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동 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는 국산 로봇착유기의 실용성과 가격 경쟁력은 현지 유통사와 낙농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과 (주)다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형 로봇착유기를 개발했다. 두 차례 상용화 실패를 겪은 뒤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다. 이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국립축산식품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보급, 전국 13개 농가에서 총 15대가 운영 중이다.

외국산 대비 약 60% 수준의 가격과 우유 생산량, 유성분, 사료 섭취량, 체중 등 국내 젖소 생체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 기능 등으로 실용성과 정책 연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도 향상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11일부터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총 7개 사용처(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통신비, 차량 연료비를 포함한 총 9개 사용처로 확대 변경하였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2300명 몰린 'KESCO 씬머페스타'

전기안전공사, 내년 체험 프로그램 추가 도입 논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달 29~31일 진행한 'KESCO 씬머페스타' 물놀이 축제의 방문자 만족도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가족 방문객 극대화 등을 위해 내년 행사에는 체험 프로그램 추가 운영 등을 논의 중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전북 완주군 분사 앞마당에서 진행한 씬머페스타 만족도 설문 결과 5점 만점에 4.8점 이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총 2300여 명이 행사를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방문객 22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진행되는 축제 분야(물놀이)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228명 중 212명이 '매우 만족'(5점)을 선택했다. '행사 전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205명이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로 5년째 지역 주민을 위한 씬머페스타 행사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높은 만족도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일부 행사 프로그램 개선을 논의 중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 방학 기간에 행사를 열어 지난해(1500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방문객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지역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맞춰 행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수중 림보게임, 수박 빨리먹기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이 큰 인기를 얻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물총 사용 자제 등 행사장 내 안전규칙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내용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